

[18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금곡(金谷)의 비를 타 서호(西湖)의 드러오니
 강산은 의구[㉡]하고 풍색(風色)이 엇더[㉢]하노
 군은은 그지[㉣]업서 삼순*을 놀니시니
 장하(長夏) 강촌의 와실(蝸室)*이 소조*[㉤]하야
 사립문이 본디 업서 밤인들 다들소냐
 ㉥ 발이 하 성기니 물 보기 더욱 도타
 소루(小樓)의 누어시니 크나큰 천지를
 벼개 우히 다 볼노라 처마 하 얹으니
 석양도 들거니와 빗발도 드리친다
 님 **그러** 저즌 소매 **별** 아니면 뉘 말리며
 우국(憂國)[㉦]하야 탄 가슴을 비 아니면 어찌 살겠는가
 ㉧ 동서의 분주[㉨]여 주야를 모르더니
 오늘은 어떤 날인가 이 몸이 편안커니
 보리밥 몰니겨 아히아 걱정마라
 짧으나 짧은 ㉩ 밭의 꿈자리 어즈러워
 봉래산 제일봉의 어느 님을 만나보아
 반기노라 홀 말 업고 늦기노라 한숨 지어
 내히 설은 사설 사되나 묻내 사되어
 풍우성(風雨聲)의 잠 깨어 नी어 안자 한숨 짓고
 ㉪ 촌계(村鷄) 벌써 우니 할 일이 전혀 업서
 포금*을 추켜 덮고 위몽(危夢) 새로 드니
 동산의 일출토록 호접이 되엿더니
 네 밥 곳 수이 되면 이 잠을 채 잘소냐
 (중략)
 남산의 우혈(雨歇)커늘 먼 눈을 바라보니
 관악산광*은 만고(萬古)의 한 빛이로다
 ㉫ 흰 듯 검은 것은 알겠구나 구름이로다
 저 구름 지난 후면 저 뉘를 고터 볼까
 울도(栗島)의 안개 걷히고 양화(楊花)의 해 지거늘

문군아 내 옷 다오 종문아 막대 다오
전나귀 채찍 없이 종무를 뒤세우고
강변의 내걸으니 만랑*이 더욱 도타

— 이호민, 「서호가」 —

- * 삼순: 한 달.
- * 와실: 달팽이 뚜껑 같은 작은 집.
- * 소조: 호젓하고 쓸쓸함.
- * 포금: 베로 만든 이불.
- * 관악산광: 관악산의 경치.
- * 만랑: 해 저물 무렵의 물결.

(나)

시리산 저 뒤편에 반가울샤 상원달이
풍년 소식 띄워다가 내 창 앞에 먼저 왔다
아마도 이 ㉠ 밭 조흔 경치에 놀지 안코 무슴헝리 <1수>

취헌 잠 늦게 깨어 강가를 바라보니
자욱이 퍼인 안개 한식 비 개엿도다
아히야 술 부어라 전촌의 취한 노래 절 일닌가* 흥노라 <2수>

녹수 산정 기픈 곳에 벗 부른다 저 새소리
동풍에 깃을 떨쳐 그치는 곳이 구우*로다
내 엇지 사람으로 새만 못헝여 한이로다 <4수>

밭 갈아 밥을 먹고 샘을 파 물 마시니
강구연월* 어느 때인가 고잔 들 노랫 소리 아름답다 저 농부야
태평곡 화답홀 제 내 근심 절로 업다 <5수>
— 남극엽, 「애경당십이월가」 —

- * 절 일닌가: 절기 때를 알리는가.
- * 구우: 언덕의 모퉁이.
- * 강구연월: 태평스러운 세상을 뜻함.

1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답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② 연쇄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 ③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직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9.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는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며 자신의 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화자는 자신의 계획을 통해 예상되는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화자는 현재와는 다른 자신의 과거에 대해 떠올리고 있다.
- ④ ㉢: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언급하며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화자는 자신의 시야에 들어온 대상에 대해 지각하고 있다.

20.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한계가, ㉢은 화자의 능력이 부각되는 시간이다.
- ② ㉠은 화자의 의구심이, ㉢은 화자의 기대감이 심화되는 시간이다.
- ③ ㉠은 화자의 관찰력이, ㉢은 화자의 상상력이 강조되는 시간이다.
- ④ ㉠은 화자의 안도감이, ㉢은 화자의 불안감이 나타나는 시간이다.
- ⑤ ㉠은 화자의 아쉬움이, ㉢은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사대부들은 시가 작품을 통해 삶의 모습과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가)는 관료 생활을 영위한 사대부가 자연에서 소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면서 자연물을 통해 연군의 정과 나라에 대한 근심을 그려 낸 작품이다. (나)는 출사하지 못한 사대부가 향촌 공동체에 어우러져 살아가며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일상과 함께 그 속의 고뇌를 자연물을 통해 그려 낸 작품이다.

- ① (가)에서 ‘사람문’이 없는 ‘강촌의 와실’에는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대부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② (가)에서 ‘님 그려 저즌 소매’를 ‘별’으로 말린다는 것에는 임금을 향한 사대부의 그리움이 드러나 있군.
- ③ (나)에서 ‘농부’의 ‘노랫 소리’에 ‘태평곡’으로 화답하는 것에는 향촌 공동체의 구성원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대부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④ (가)에서 ‘풍우성’에 ‘잠 깨어’ ‘한숨 짓’는 것과 (나)에서 ‘사람으로 새만 못해’ ‘한’이라는 것에는 모두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한 사대부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군.
- ⑤ (가)에서 ‘강변’을 걸으며 ‘만랑이 더욱 도타’는 것과 (나)에서 ‘늦게’ 일어나 ‘강가를 바라보’는 것에는 모두 자연을 즐기는 사대부의 여유로운 일상이 드러나 있군.

[22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 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구축죽한 어촌보담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아 매었다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쟁크*와 같아
소금에 절고 조수(潮水)에 부풀어 올랐다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 가고
전설에 읽어 본 산호도(珊瑚島)는 구경도 못 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쳐 주도 않았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오르면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오여쌌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이나

다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는 붙어 왔다

먼 항구의 노정(路程)*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 이육사, 「노정기」 —

* 쟁크: 정크(Junk). 중국 연해나 하천에서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는 배.

* 시궁치: 더러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썩어서 질척질척하게 된 도랑의 근처.

* 노정: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

(나)

[A] 부패해가는 마음 안의 거대한 저수지를
나는 발효시키려 한다

[B] 나는 충분히 썩으면서 살아왔다
목은 관료들은 숙변을 내게 들이부었고
나는 낮은 자로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C] 이 땅에서 냄새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수렁 바닥에서 멍든 얼굴이 썩고 있을 때나
흐린 물 위로 떠오를 때에도
나는 침묵했고
그 슬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D] 나는 한때 이미 죽었거나
독약 먹이는 세월에 쓸개가 병든 자로서
울부짖음 대신 쓴 거품을 내뿜었을 뿐이다
문제는 스스로 마음에 뚜껑을 덮고 오물을 거부할수록
오물들이 더 불어났다는 사실이다
뒤늦게 나는 그 뚜껑이 성긴 그물이었음을 깨닫는다
물왕저수지라는 핏말이 내 마음의 한 변두리에 꽂혀 있다
나는 그 저수지를 본 적이 없다

[E] 긴 가문 날 흙먼지투성이 버스 유리창을 통해
물왕저수지로 가는 길가의 핏말을 얼핏 보았을 뿐이다
그 저수지에
물의 법이 물왕의 도가
아직도 순환하고 있기를 바란다
그 저수지에 왕골을 헤치며 다니는 물뱀들이
춤처럼 살아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흰 갈대꽃이 피고

[F] 잉어들은 찹찹거리고 물오리떼는 날아올라
발효하는 숨결이 힘차게 움직이고 있음을
내 마음에도 전해주기 바란다

- 최승호, 「발효」 -

(다)

포구의 사람 중에 전복을 팔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 내가 묻기를,
“당신이 하는 일의 이득은 과연 어느 정도냐?”

하고 물었더니, 말하기를,

“이것은 천한 일이운데, 어찌 물을 일입니까? 대저 바다는 죽음의 땅이고 전복은 반드시 바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또 그 물이 아닌 갈고리를 들어야 잡을 수 있으며, 반드시 바닥에까지 잠겨야 하며, 숨을 멈추고 잠깐 동안 머무르면서 찾기를 다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작살로 빠르게 찔러야 이내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잠깐이라도 느리게 하면 전복이 칼날을 물어 비록 힘을 다하더라도 칼을 뺄 수도 없으며, 전복은 꿈쩍도 하지 않아 서로 버티다가 시간이 늦으면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바다에는 사람을 잡무는 나쁜 고기들도 많으며, 바다 밑은 또 매우 차가워 비록 무더위에 잠수하는 사람들도 항상 추워서 오들오들 떠니 잠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나이 십여 세가 넘으면 서 앞은 데서 익히다가 조금씩 익혀 깊은 데로 갑니다. 이십 세에 이르러서야 전복 잡이는 가능하며, 사십이 넘으면 그만 둡니다. 또 잠수하는 사람은 항상 바다에 있으니 머리털이 타

고 마르며, 그 살갗은 거칠고 얼룩얼룩하며, 일어나고 기거하는 모습도 일반인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편안하지도 다치지도 않아야 하는데, 이 일의 괴롭고 천함이 이와 같으며, 관청에 바치는 것도 그 양을 다 채우지 못하는데 어찌 이득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병이라도 들지 않겠는가. 어찌 이 일을 버리고 다른 일에 힘쓰지 못하는 것인가?”

하니, 그 **잠수부**가 입을 딱 벌리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무슨 일이 잠수부에게 편한 것이 있겠습니까? 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농사와 상업뿐입니다. 농부도 가뭄이나 장마에 굶주리고, 상인도 남과 북으로 뛰어다녀 그 괴로움이 나와 더불어 같을 것입니다. 만약 군자의 일인 벼슬을 할 것 같으면 편히 앉아서 녹을 먹고, 수레에 올라앉으면 따르는 무리가 있고, 금빛 붉은 빛에 아름답게 꾸민 관이 우뚝 높고, 조정에 들어가면 부(府)나 성(省)을 받들고 지방으로 나아가도 주(州)나 부(部)에 임하니, 이것은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라 이를 만합니다. 그러나 또한 일찍이 들으니, 아침이면 국록을 먹으나 저녁이면 책망을 당하니, 어제는 한양 땅 부성(府省)에 있으나 지금은 좌천되어 영해(領海)에 있습니다.

(중략)

저 농사와 장사도 어려우니, 참으로 반드시 이 일을 버리고 힘쓰지 않을 수 없으며,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로움에 나아감에 견주어 보면, 사람들이 먹여 주는 것을 먹는 것과 내 힘으로 먹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으며, 사람을 다스리는 것과 또 내 일을 다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으며,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나의 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하물며 안으로 막히고 밖으로 죄에 걸려 죽어 가는 것과 때를 기다려 서로 힘을 합하여 물에 빠지는 위태로움에서 벗어나 수면에 나타나니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내가 또 무엇을 미워하겠습니까? 비록 내가 고을에서 보건데, 우리 무리들은 그 즐거움에 항상 편안하며, 벼슬하는 사람들이 꾸짖으며 와서 몸을 묶더라도 그 사람 또한 그 하나일 뿐이니, 일에 있어 어느 것이 위태롭고 어느 것이 편안하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구별을 했을 것이니 어찌 그대의 일을 후회하지 않으면서 이에 나보고 도리어 이 일을 버리라고 깨우쳐 주니, 슬픔니다. 이제 그만듭시다.”

라고 하였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 땀에 젖고 놀라서 입이 벌어져 오랫동안 대답할 수 없었다.

오호라, **옛사람이 벼슬길을 바다에 비유했으나** 나는 믿지 않았더니, 지금 잠수부의 말로써 시험하니 벼슬길의 위태로움이 바다보다도 심하구나. 그러므로 **그 말을 기록하여** 일을 택함의 잘못된 것을 슬퍼하고, 이로 인하여 훗날 **벼슬길에 오르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자** 한다.

- 김진규, 「몰인설(沒人說)」 -

22.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 ~ (다) 모두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여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가) ~ (다) 모두 청각의 시각화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에서는 물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화자의 삶이 형상화되는 경우가 있다. (가)는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배의 이미지를 통해 안식을 소망했던 고달픈 삶을 형상화하며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나)는 부정적 상황을 인식하고 순환하는 물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있는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① (가)에서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우고 ‘산호도는 구경도 못 하는’ 것은 화자의 고달픈 삶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목숨’이 ‘깨어진 배 조각’처럼 흩어지고 ‘내 꿈’이 ‘밀항하는 썰크와 같’다는 것은 흘러가는 배의 노정에 화자의 삶을 관련지어 나타낸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마음’에 덮은 ‘뚜껑이 성긴 그물이었음’을 깨닫는 것은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④ (가)에서 ‘발목을 오여’싼 ‘시궁치’는 화자가 꿈꾸던 안식의 공간을, (나)에서 ‘물뱀들’이 살아있길 바라는 ‘그 저수지’는 화자가 물이 순환하기를 기대하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붙어 왔다는 것은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에서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갈대꽃’이 피길 바라는 것은 생명력 있는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나타낸 것이겠군.

24.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는 모두 타인과는 다른 처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는 모두 이전과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타인의 외양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의 ‘나’는 타인이 겪을 일에 대한, (다)의 ‘잠수부’는 자신이 겪을 일에 대한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나’는 타인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다)의 ‘잠수부’는 타인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25. [A] ~ [F]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마음 안의 거대한 저수지’가 부패해 가는 이유를 [B]에서 찾을 수 있다.
- ② [B]에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상황은 [C]에서 지속되고 있다.
- ③ [C]에서 ‘침묵’하고 ‘슬픔’을 받아들인 행위는 [D]에서 나타난 문체로 이어지고 있다.
- ④ [D]에서 ‘독약 먹이는 세월’에 ‘병든 자’로 살아온 원인은 [E]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E]에서 ‘본 적이 없다’는 ‘물왕저수지’에 대한 상상은 [F]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설(說)의 표현 방법 중에는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른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 「물인설」의 글쓴이는 대화 상대가 갖고 있는 직업적 고충과 제도 내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게 되고, 대화 상대의 가치관이나 소신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을 드러낸다.

- ① ‘나쁜 고기들’이 많고 ‘바다 밑’이 매우 차갑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라는 직업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관청’에 전복을 ‘바치는’ ‘양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가 겪는 제도 내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이 낫다는 것에서 잠수부가 지닌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벼슬길’에 대한 ‘옛사람’의 말이 ‘잘못된 것을 슬퍼’하는 것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깨달았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그 말을 기록하여’ ‘벼슬길에 오르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알리려는 글쓴이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군.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연 서번국의 대장 진골대가 급히 군사를 몰아 [남주정]에 들어가니, 백성이 하나도 없고 성 안이 텅 비어 있었다. 진골대가 크게 놀라 도로 진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현후가 서번군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군사들을 급히 출동시켜 에워싸며 산 위에 올라가 소리쳐 말했다.

“서번이 어찌 감히 우리를 당할소냐? 옛날 양평공과 우골대가 다 내 칼에 죽었거늘, 네 맞아 죽고자 하니 어린 강아지가 맹호를 모르는 격이로다. 제 죽은 혼일망정 나를 원망치 말고 새 황제를 원망하여라.”

그리고는 불화살을 재빨리 쏘니, 성 안에 화염이 하늘에 퍼져 가득하여 모두 불길일터라. 적군이 건디지 못하여 불길을 무릅쓰고 달아나는데, 또 위왕의 군진을 만나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서로 짓밟혀 죽은 자를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다. 진골대 탄식하며 말했다.

“위왕은 만고의 영웅이라서 사람의 힘으로는 미칠 바가 아니로다.”

이렇게 한탄하고 항복하여 말했다.

“우리 왕이 구태여 싸우려 한 것이 아니라 새 황제가 시킨 것이니, 바라건대 위왕은 쇠잔한 목숨을 살리소서.”

위왕이 말했다.

“서번국과 과인의 나라는 본디 친하여 꺼리고 미워하는 것이 없기로 놓아 보내거니와, 차후로는 아무리 새 황제의 조서가 있더라도 기병할 마음을 먹지 말라.”

그리고는 돌려보내니라.

이때 새 황제의 군대가 구골대의 군대와 합병하여 [화음현]에 도착하였는데, 백성들이 길에서 울고 있는지라 그 까닭을 물으니 답하여 말했다.

“위왕이 서번국에 패하여 거창산에 들어가 백성들을 모아 군사를 삼으니, 저마다 도망하다가 처자식을 잃고서 절로 슬퍼 우나이다.”

구골대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위왕을 잡으려 거창산으로 군대를 몰아 들어가니, 길이 험하고 수목이 무성하여 행군하기 꽤 어려웠다. 그래도 점점 들어가니, 과연 산 위에 깃발과 창칼들이 무수히 꽂혔고 진중이 고요하여서 크게 고함치며 쳐들어갔지만, 군사가 다 짚으로 만든 ㉠ 허수아비였고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구골대가 몹시 놀라 어찌할 줄 몰랐는데, 문득 산 위에서 대포 쏘는 소리가 나고 불이 사방에서 일어나며 화살과 돌이 비 오듯 하였다. 구골대가 하늘을 우르르며 탄식하여 말했다.

“내 어찌 이곳에 들어와 죽을 줄을 알았으랴?”

그리고는 죽기로써 불길을 무릅쓰고 산의 어귀를 나서니, 또 좌우에서 함성을 크게 지르며 뒤쫓아 왔다. 구골대가 능히 대적하지 못하여 투구를 벗고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살기를 빌자, 위왕이 크게 꾸짖고 증곤으로 불기를 30대 쳐서 내치니라. 구골대가 거듭 절하며 고맙다는 뜻을 표하고 돌아가다가 인하여 죽었다. 양국의 대병이 대패하자, 서번왕이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새 황제의 조서를 받고서 망령되어 군사를 일으켰다가 아까운 장수와 군졸만 죽었으니, 어찌 분하고 한스럽지 않으랴? 이후로는 위나라 땅을 침범치 못하리로다.”

이때 새 황제는 세 방면의 군대가 대패한 것을 듣고서 크게 놀라 탄식하고 한탄하며 말했다.

“위왕은 과연 천신이로니, 뉘 능히 당할 수 있으랴?”

[중략 줄거리] 새 황제가 위왕 현수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둘은 화해한다. 이후 현수문은 죽음을 맞이하고 아들 현후가 새 위왕이 된다.

몇 달이 지난 후에 갑자기 새 황제의 사자가 이르렀다 하여 새 위왕이 그를 맞이하였는데, 사관이 말했다.

“황상께옵서 위왕의 지방이 좁고 길이 땀을 염려하시어 우선 서천의 한 곳을 환수하라 하였고, 위왕을 보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셔서 특별히 사관을 보내어 함께 올라오기를 기다리시나이다.”

그리고는 조서를 들었는데, 새 위왕이 조서를 보고 황궁을 향해 네 번 절하고 의아해 마지않아서 말했다.

“황상의 망극한 은혜가 이처럼 미쳤으니, 어찌 황공하고 두렵지 않을 수 있겠소?”

그리고서 사관과 함께 길을 떠났는데, 좌승상 석침을 데리고 황성으로 향하니라. 여러 날 만에 황정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수천 군마가 힘차게 달려 나와 새 위왕을 에워싸서 말할 수 없이 절박하거늘, 새 위왕이 크게 놀라 문득 일광대사의 가르친 일을 생각하고 단소를 내어 부니라. 소리가 심히 처량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풀어지도록 이끄니, 여러 군사들이 일시에 흠어지니라. 이는 종실 조충이 본디 외람한 뜻을 두었으나 매양 위왕 부자를 꺼리다가, 이제 비록 현수문이 죽었으나 그의 아들 현후를 시기하여 새 황제에게 헐뜯고 죄 있는 것처럼 고하여 바친 것이다. 이날 가만히 새 위왕 현후를 잡아 없애고자 하다가 갑자기 단소 소리를 듣고 스스로 마음이 풀어진 바가 되었으니, 천도가 무심치 않음을 가히 알지라.

새 위왕이 그 위급한 화를 면하고 바로 궐내에 들어가 새 황제 앞에 엎드리니, 새 황제가 보고 한편으로 반기며 다른 한편으로 부끄러워 말했다.

“경을 차마 잊지 못하여 가까이 두고자 한 것인데, 이제 짐의 몸이 평안치가 않아서 말을 이르지 못하겠노라.”

그리고는 도로 용상에 누워 혼절하니, 위급함이 시각에 달려 있었다. 만조백관들이 허둥지둥 어찌할 줄 몰랐는데, 새 위왕 또한 새 황제의 위급함에 크게 놀랐지만 문득 ㉡ 환약을 생각하고 주머니 속에서 꺼내어 새 황제를 받드는 신하에게 주며 말했다.

“이 약이 비록 좋지 못하나 응당 효험이 있을 듯하니, 갈아서 잡수시게 하는 것이 어떠하느뇨?”

만조백관이 다 허둥지둥하는 가운데 혹 다행이라 여기기도 하며 혹 의심을 내기도 하였는데, 곁에 조충이 있다가 이를 보고 생각하였다.

‘만일 황상이 깨어나지 못할진대, 새 위왕을 없애려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조짐을 만남이니 어찌 다행치 않으랴!’

그리고는 급히 환약을 받아 시녀로 하여금 갈아서 새 황제에게 먹이게 하였더니, 오래지 않아 호흡이 능히 통하고 또 정신이 썩썩하여져 오히려 전보다 심사가 상쾌해졌다.

— 작자 미상, 「현수문전」 —

2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적 장면 묘사를 통해 작중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의 과장된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천상계와 지상계의 사건을 병치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8.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주성’에서 진골대는 위왕의 군사로부터 크게 패했다.
- ② ‘화음현’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우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 ③ ‘거창산’에서 벌인 전투 이후에 구골대는 죽음을 맞이했다.
- ④ ‘황성’에서 사관은 좌승상 석침과 함께 있던 새 위왕을 만났다.
- ⑤ ‘궐내’에서 혼절한 새 황제를 보고 만조백관들은 허둥지둥했다.

29.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구골대가, ㉡은 새 위왕이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게 하는 소재이다.
- ② ㉠은 구골대가, ㉡은 새 황제가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위왕이 변신한 소재이고, ㉡은 새 황제를 변신하게 하는 소재이다.
- ④ ㉠은 위왕의 걱정을 해소시키는 소재이고, ㉡은 새 위왕의 걱정을 심화시키는 소재이다.
- ⑤ ㉠은 구골대를 위태롭게 하는 소재이고, ㉡은 새 황제를 위태로움에서 구하는 소재이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현수문전」은 제후인 주인공들이 대를 걸쳐 황제와 겪는 갈등 관계가 반복되는 군담 소설이다. 이때 황제는 외부 세력을 활용한 간접적 방식으로 제후국에 군사적 압력을 가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인물의 영향을 받아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들은 영웅적 면모를 발휘해 고난을 극복 하면서도 황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① 조충이 위왕 부자를 꺼려 새 황제에게 혈통은 것에서 황제가 갈등을 조장하는 인물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새 위왕이 일광대사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단소를 붙여 군사들을 흠어지게 한 것에서 영웅적 기지를 발휘해 고난을 극복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서번왕이 위왕에게 패해 장수와 군졸을 잃고 탄식하는 것에서 제후가 황제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새 황제가 서번왕에게 군사를 일으키라고 조서를 보냈다는 것에서 황제가 다른 세력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제후국에 군사적 압력을 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위왕이 새 황제로 인해 공격을 받은 것과 위왕의 아들인 새 위왕이 새 황제를 만나러 가서 위험에 빠진 것에서 제후와 황제의 갈등이 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술이 알맞게 되었을 때, 청년 신사는 노래를 중지시키고, 예의 청산유수식 구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 농촌 경제가 어떠니, 구태의연한 영농방법을 버리고 근대화를 해야 되느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느니, 또 도시에 주택단지 공업단지가 서듯이 농촌에는 식량단지, 채소단지, 심지어 돼지단지까지 있어야 하느니 등, 그야말로 먼 앞날을 내다 보는 ㉠ 유익한 얘기들이 꼬리를 물 듯 계속되었다.

옛날에는 권업계 서기요 지금은 산업계 서기들이 하는 말을 수타 들어왔기 때문에, 허 생원도 대강 짐작은 갔었지만, 결국 귀에 남는 것은 무슨 단지 단지 하는 새로운 말뿐이고, 청년이 말하는 < 먼 앞날 > 보다 우선 코앞에 다가 있는 < 사는 문제 > 가 더 절박했다.

[A] “허 선생님은 이 고장 출신이시고, 또 누구보다 이곳 사정을 잘 아실 뿐 아니라 이해도 깊으실 터인 만큼 —” 드디어 청년 신사는 화제를 슬쩍 딴 데로 돌리려 하였다. “야?”

허 생원은 난생 처음 듣는 < 선생 > 칭호와 말공대에 잠깐 어리둥절하였지만, 경계심이 갑자기 얼굴에까지 나타났다. “㉡ 예, 직 누구보다도 이해가 많으실 줄 알기 때문에…….” 청년은 약간 의외인 듯한, 그래서 다소 거북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니 우짜란 말입니까?”

허 생원은 그 부리부리한 눈으로 청년 신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직, 이곳 하천부지 건인데 이번 정부 시책에 따라서…….”

청년은 < 직 > 이란 말을 곧잘 썼다. < 직 > 하고는, — 정부의 시책에 따라 그곳에 새로운 농업단지를 조성키 위하여, 그 방면에 연구가 깊으신 서울 모 유력자가 그 일대의 < 휴면법인토지 > 를 도통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 — 라기보다 바로 통고 비슷한 말을 했다. 그리고 능글맞게 덧붙여서, — 위낙 이 지방 연고자들의 사정을 잘 짐작하시는 분이 돼서, 섭섭지 않을 정도의 위자료랄까 동정금이랄까를 내게끔 돼 있다는 말까지 했다. 말하자면 안 내도 될 걸 그런 선심까지 쓴다는 말투였다.

“머 동정금을 내? 누가 그런 거 달라 켜던강? 그래 이곳 사정을 잘 안다는 양반이 덜쟁한 남의 땅을 맘대로 뺏아?”

허 생원은 참다못해 분통을 터뜨렸다. 말하는 턱이 덜덜 떨 정도였다.

“㉢ 글썽요, 휴면 법인 재산이라 안갑니까. 그러니까 실지는 국유지였지요!”

청년은 내치 능글능글한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

“머 국유지라?”

허 생원은 한결 사납게 쏘아보더니,

“그래, 국유지면 서울 놈들만 가지라 카는 법도 있나? 근 삼십 년이나 논밭을 치고 갈아온 우린 우짜고? 택도 아닌 소리! 그래, 청년은 젊은 나이에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그따위 놈들의 비선가 먼가를 하며, 그런 백성 울리는 심부름만 하고 땡기능가?” “말조심 하시오!”

청년 신사도 결국 반말에 안색을 달리했다. 약간 치제진 눈초리에 솟제 경멸의 빛까지 담아 보였다.

“㉣ 말조심—? 그기 누가 할 소린데……?”

허 생원도 데데하게 물러설 눈치는 아니었다. 마주 쏘아보았다.

[중략 줄거리] 허 생원은 청년과 대치하다가 결국 청년을 때린 일로 파출소로 잡혀 간다.

< 법률 > 에 가서는 농민은 약한 것이다. 때로는 평지*의 대궁이보다 더 연약했다. 첫째는 몰라서 그랬고, 둘째는 왜놈 때부터 줄곧 당해 온 경험으로 봐서 그러했다.

불들려만 가면 그만이었다. 고분고분히 지장을 찍지 않으면 당장 호통이고, 버티면 떡이 되게 마련이었다.

“㉤ 괜히 잘못된 건디렸지! 서울에서 왔다운 대강 알아묵우알 낀데…….”

부락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들을 했다. 그러한 부락 사람들의 말대로 허 생원은 쉬 놓여나오지를 못했다.

파출소에서 그날 밤 일을 예사스럽게 다룰 수 없다 해서 곧 본서로 넘겼다.

허 생원은 폭행죄로 29일간의 구류를 살고 겨우 놓여나왔다. 정식 징역감이지만 서울 있는 그 유력자의 특별한 부탁으로 석방되는 것이니 그렇게 알라는 ㉥ 경찰의 훈계였다.

허 생원도 암말도 안했다. 촌사람들끼리 같으면 그까짓 코피 정도는 암것도 아닌데, 법도 사람 따라 다른가, 그저 야속하고 억울할 따름이었다. 그렇다고 어디 가 하소연할 데도 없는 허 생원이었다.

‘용이란 놈만 살아 있더라도…….’

허 생원은 아직 유골도 돌아오지 않은 용이를 또 생각하는 것이었다.

어두운 구룻간을 벗어나도 걸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먼지가 폭신대는 신작로를 터벅거리면서 그는 내쳐 먼 월남 쪽 하늘을 뉘 없이 바라보곤 하였다. 오봉산 위에서 울어 대는 뺨국새 소리가 어쩔 월남이란 데서 숨진 아들의 뉘같이도 생각되었다.

‘㉔ 그러나 녀석은 애비가 이렇게 된 줄은 모를 끼라…….’

허 생원의 부리부리한 눈에 느닷없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남이 볼까 몇 번이나 손등으로 닦았다.

그의 집에는 보다 큰 불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말을 듣자, 그는 앓을 새도 없이 독 너머로 갔다.

평지를 베어낸 자리에는 <××특수 농작물 단지>란 흰 팻말이 서 있었다. 하필 두엄이 쌓여져 있는 그의 논 가운데.

[B]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허 생원은 이내 집으로 돌아와서, 도끼를 찾아 들고 다시 들로 나갔다. 구룣간의 피로 따윈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단번에 팻말을 쳐 넘긴 그는, 그길로 자기 들의 포플라 밭으로 달려갔다. 닥치는 대로 마구 찍어 냈다.

용이가 그걸 하나하나 심을 때 무어라 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둘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 뻑뻑하게 자란 숲! 웬만한 서까래만큼씩한 이탤리 포플라들이 허 생원의 악지 센 **도끼질**에 사정없이 넘어갔다.

허 생원은 지쳤다. 우선 넘어진 나무들 밑에 삭정이를 모아 놓고 **불**을 질렀다. 불은 곧 다른 나무에도 옮겨 붙었다.

순식간에 강가 허 생원네 포플라 숲은 온통 불바다로 변했다. 새빨간 불기둥이 검은 연기를 뿜고 노을 진 저녁 하늘을 찢었다.

허 생원은 미친 사람처럼 다시 도끼를 휘둘렀다. 나무를 내리치는 쨍쨍하는 소리가 불길 속에서 계속 들려왔다.

— 김정환, 「평지」 —

* 평지: 십자화과의 두해살이풀. 유채.

31. [A],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B]는 내적 독백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③ [B]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주변 인물의 말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32.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㉔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허 생원의 반응을 뜻밖이라고 여기며 불편해 하는 청년의 태도가 나타난다.
- ② ㉡: 허 생원의 반박에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청년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③ ㉢: 자신을 알보는 청년에게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는 허 생원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④ ㉣: 허 생원이 겪고 있는 상황을 염려하는 부락 사람들의 심리가 드러난다.
- ⑤ ㉤: 죽은 아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처지를 서러워하는 허 생원의 심리가 드러난다.

33.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모두 허 생원이 주변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는 내용이다.
- ② ㉠와 ㉢는 모두 허 생원이 자신에게 이미 일어난 일을 수궁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③ ㉠는 허 생원이 다른 인물의 의견에 동조하는 근거이고, ㉢는 허 생원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체념하는 근거이다.
- ④ ㉠는 허 생원이 자신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고, ㉢는 허 생원이 자신의 가치관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다.
- ⑤ ㉠는 허 생원이 자신에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용이고, ㉢는 허 생원이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평지」는 1960년대 근대화로 인한 농민의 애환을 다루고 있다. 주인공은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삼는 자본가로부터 생활 터전을 빼앗기게 되고 이로 인해 고초를 겪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인공은 농민이 사회 제도에서 상대적 약자이며 역사적으로 반복된 억압의 대상이었음을 깨닫고 농민의 입장이 배제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다.

- ① ‘새로운 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모 유력자가 그 일대의 <휴면법인토지>를 도통 쓰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삼는 자본가에게 농민이 생활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통고 비슷한 말’로 ‘멀쩡한 남의 땅을 맘대로 뺏’는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근대화 과정에서 농민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국유지면 서울 놈들만 가지라 카는 법도 있’냐며 ‘삼십 년이나 논 밭을 치고 갈아’왔다는 것을 통해 농민이 과거에도 억압적 상황을 겪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촌사람들끼리 같으면’ ‘암것도 아닌’ 일에 ‘법도 사람 따라 다르다’며 억울해 하는 것을 통해 농민이 사회 제도에서 상대적 약자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둘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도끼질’을 하고 ‘불’을 지르는 것을 통해 농민이 불합리한 현실에 분노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